



조간 제796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음력 9월 30일)

## 생활인구 월 1000만명 시대 연다...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남도, 인구대전환 시즈2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

3대 전략 20개 과제...김영록 "국내인구 정책 선도"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월 1000만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을 비전으로 인구대전환 시즈2인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인구 통계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를 더한 수치로, 지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정책에 도입됐다.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생활인구 통계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등록인구는 70만명, 체류 인구는 278만명으로, 생활인구는 348만명에 달한다. 한 달간 등록 인구의 5배가 전남을 오가며 생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24개 시·국·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전남연구원 인구전략추진센터와 함께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연결-유입-성장의 3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연결' 전략은 전 국민이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전남 사랑에(愛) 서 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광·특산물·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입' 전략은 전남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일·심·체함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축제·숙박·체험 등 시군 간 보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모델로 구축한다.

'성장' 전략은 머무는 인구가 전남과 지

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희주택 10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공간으로 재활용(70억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세 가지 전략과 함께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집특화형 도시재생, 관광농원 규제 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10개 과제의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월 1000만명이 전남에 머무르면, 2025년 1분기 전남 생활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12만3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전남의 일상을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주민이다"며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전남으로 모이고, 전남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하는 유학생들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주제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유학생들에게 K-전통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N행사' 백일장을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대 의학 278점·조선대 의예 276점

2026 수능 광주 고3 수험생 가채점 분석

한국에너지공대 263점·GIST 254점·광주교대 228점

시교육청 진학팀 등 분석...내달 19~23일 '정시 상담'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266점, 자연계열 265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대 의학과(지역) 278점, 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지역) 274점, 조선대는 의예과(지역) 276점, 치의예과(지역) 272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고3 재학생 기준 가채점 점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 266점 내외, 자연계열 26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 1+II, II+II 조합)을 충족한 학생들의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259점 내외,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교육대 228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GIST) 254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 26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232점, 영어교육과 223점, 경영학부는 222점, 행정학과 217점, 정치외교학과 216점, 국어국문학과 212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08점 내외로 판단됐다.

자연계열은 의학과(지역) 278점, 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 274점, 약학부(지역) 270점, 수의예과 269점, 전기공학과 241점, 수학과 207점, 간호학과(지역) 230점으로 분석됐다. 자연계열 지

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203점, 수학 미지정(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모두 가능) 학과 210점 내외로 판단됐다.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지역) 276점, 치의예과(지역) 272점, 약학과(지역) 269점, 간호학과(지역) 213점으로 분석했다. 단, 정시 선발 비율이 3.2%로 정시 지원 시 이월 인원 확인이 중요하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은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 점수는 원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개인별 수능 성적이 통치되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12월 5일 오전 9시 수험생에게 통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표점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12월 19~23일(일요일 제외)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전문교사들이 '정시모집 대비 1대1 집중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위기의 광주 상권...로컬브랜드 육성 필요”

시의회-상생일자리재단, 골목상권활성화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89% “골목상권 지원 강화·정책 개선해야”

온라인소매와 인구 감소 등으로 유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과 홍석기 광주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광주·서구 지역 골목상권 상점가 지점 효과를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구는 온누리가맹점 등록 홍보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점가가 지점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온

누리상권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312% 증가, 유효가맹점 수도 4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 골목형 상점가의 약 44.4%(580곳)가 광주에 집중돼 있으며, 평균 17.3%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강수훈 시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광주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8.6%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점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반면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75.1%는 현장형 골목상권 지원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토론회에서 이만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은 “골목상권은 단순한 소상공인의 생계기반을 넘어 동네문화가 형성되는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며 “개별 점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발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는 “콘텐츠 부재, 디지털 전환 지체, 상권 중심 도시계획 미흡이 구조적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상권메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해 로컬콘텐츠 기반 상권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필순 의원은 “이제는 개별 상인 단위 대응을 넘어 상권을 단위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이 단순 소비 장소를 넘어 로컬콘텐츠 산업의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년 제 14기 광남일보

##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모집기간 2026년 2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000명(선착순)

초청강사 정치, 경제, 교육, 법조, 의료, 문화예술, 저명인사 초청 특강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특급호텔 식사 제공)

학사운영 1년 과정 (1학기 : 3월-6월 / 2학기 : 9월-12월)

해외연수 2026년 여름방학 중 (예정)

진행방법 서류전형

접수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접수방법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광남일보